

인사말씀

존경하는 중앙총회의원과 교구본사주지 스님들, 직할 직영 특별분담금 문화재관람료 사찰의 주지 스님들, 중앙신도회 및 재가단체 대표님들, 한국불교 융성을 염원하는 사부대중 여러분들!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모연의 밤>에 기꺼이 동참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민족문화의 중심이자 호국불교의 상징을 올곧게 세우는 일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34대 집행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식을 봉행한 뒤 1년여 동안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사업의 마중물이 될 국고보조금 200억 원의 지원도 확정됐습니다.

총무원과 조계사가 위치한 총본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불교가 기독교, 천도교 등과 함께 3.1 만세 운동의 씨앗을 싹틔운 곳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의 왜색화를 비켜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의 염원과 식민지 지배라는 영과 욕이 이 땅에 함께 서려 있습니다.

우리 선대 스님과 불자들은 불교의 청정가풍을 되살리기 위해 1938년 백미 2천 섬과 8만 냥의 정성을 모아 총본산 건립불사를 벌였습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조계사의 가람을 정비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총본산이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일 같이 수많은 서울시민과 해외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지만 그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거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고사하고 잠시 머물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종단과 불교계의 오랜 염원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본산 성역화는 민족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몸을 던졌던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본산이 성역화 됨으로써 참선, 다도 등 다양한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역사문화 공간이 조성됩니다. 관광버스 주차 시설, 종합관광안내센터 등을 신설하여 시민과 해외 관광객들이 더 가깝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광화문, 경복궁, 북촌, 인사동으로 이어지는 수도 서울의 중심 문화벨트로 거듭날 것입니다.

10.27법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역사의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기념 사업도 펼칩니다. 정화기념관을 건립하여 불교개혁과 정화불사의 의지를 되새길 계획입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수닷타 장자는 승가가 머물며 수행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기원정사를 조성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찰의 기원이 된 기원정사는 이렇게 원력과 발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수닷타 장자입니다. 여러분의 원력과 발심이라면 이 대작불사는 반드시 원만 회향할 것입니다. 큰 관심과 혼연한 동참을 바라며 불조 혜명을 잇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길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